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전형 Tip

1. 자기소개서를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자사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면접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면접 100% 전형입니다.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는 면접 문항을 개발하는 참고자료이며,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치는 않습니다. (단, 감점 및 0점 처리를 받을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면접 문항은 모든 지원자에게 공통적으로 질문되는 공통 문항과 지원자별로 다르게 질문되는 개별 문항으로 구분됩니다. 개별 문항은 학생부나 자소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기에, 학생부와 자소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이 제시되더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자소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부의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지난 3년간의 중학교 시절을 충분히 고민해본다는 면접에 도움이 될 것이며, 오히려 자신이 직접 쓰지 않거나 거짓으로 미화된 자기소개서는 면접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할 수 있기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성실한 학생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등과 같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내용이나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다른 학생과 차별화된, 지원자 자신만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적으면 좋습니다. 문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에 평가 항목에 맞춰 지원자 스스로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고, 단점을 보완한다는 마음으로 작성하길 권해드립니다. 면접관은 자소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 질문을 구상하기에 지원자 자신만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서술할 경우 그에 대해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3.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자기소개서는 잘 쓰는 것 보다, 주의사항을 어겨 감점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학전형요강에 안내된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고, 조금이라도 감점에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라면 자소서에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대회, 성적, 등위,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추되는 활동 등 감점 및 0점 처리를 받게되는 조건을 꼭 읽어보고, 이러한 조건들은 면접시 지원자가 답변 과정에서 드러나더라도 동일한 감점 및 0점 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 면접 전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면접실에는 3명의 면접관이 배치되어 있으며, 지원자가 면접실에 입실한 후 준비된 질문지에 제시된 질문을 1분간 읽고 5분 간 질문 내용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지원자가 보이는 곳에 남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탑워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면접관이 추가 질문을 하지 않기에, 주어진 5분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답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소서에 기재하면 안 되는 내용은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면접관 역할을 맡으셔서 모의 면접 연습을 수차례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5. 면접 문항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면접 문항은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하게 제시되는 공통 문항과 지원자별로 다르게 제시되는 개별 문항으로 구성되며, 개별문항은 학생부와 자소서를 기반으로 면접관들이 문항을 출제합니다. 학생부와 자소서 내용 중 지원자에게 묻고 싶은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예상 문항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출제된 면접 문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문항]

- 중학교 시절 교과 외 영역에서 성취감을 가장 크게 느꼈던 경험과 그 이유를 말해보시오.
- ※ 교과 외 영역 : 교과목 성적을 제외한 부분을 의미함
- 중학교 시절 읽은 책 중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는데 가장 크게 도움이 된 책을 말하고, 그 이유를 말해보시오.

[개별 문항]

- 자동차 디자인, 제품 디자인, 건축 디자인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시오.
- 교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해 말하시오.
- * 개별 문항의 경우 자소서 및 학생부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에 학생마다 질문이 다르며, 예년에 제시된 질문 중 일부를 사례로 안내합니다.

